



첫회, 죄의 삿이 사망과 지옥임을 안 후 나의 삶은 무의미했다

우리집은 삼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장손이셨고, 할머니도 살아 계셨고, 삼촌들 어머니 오빠 여동생 등 식구들이 많았다. 아버지께서 안장된 직장이 없었음인지 어머니께서 가게를 도우려 내가 어릴 때부터 직장에 다니셨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집안일을 하시고, 낮에는 어머니를 못 보는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다. 그래서 마음 한편은 늘 허전하였고, 어쩌다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날이 그렇게 좋았다. 집안 어른들은 다 선량하신 분들이었고, 어머니께서도 선하신 분이셨으나 가게를 도우시느라 오랫동안 직장에 다니며 고생을 많이 하셨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삼촌들 결혼하여 나가고, 초등학교 4학년 말에 '가야 산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할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장녀인 내가 집안일을 도와드려야 했다. 말없는 성품인 세 살 위 오빠는 가난한 환경에서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부산의 명문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우리 가문의 큰 자랑이었다. 세 살 아래 여동생은 막내답게 명랑하게 잘 놀며 자랐다. 우리 집은 물 사정이 안 좋아서 우물이 생길 때까지 아랫집에 가서 물을 길어 와야 했다. 바깥에 우물물을 퍼 올려 담아서 계단을 한참 올라오는 너무나 힘든 일로 내 평생 물을 귀하게 여기고 아껴 쓰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

원대한 자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야 산동네의 집은 늘 자연을 대하기가 좋았다. 뽕나무 하늘이 가깝고 공기가 맑았다. 저녁때 바라볼 수 있는 저녁노을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사시사철 그 저녁노을은 아름답고 멋지게 펼쳐졌다. 밤하늘의 별은 더욱 빛나고, 달도 밝게 떠있었다. 가난으로 고단함과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을 뽕나무 하늘을 바라보며

달랐다.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맘에 위안과 평화를 얻었다. 원대한 자연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다. 자연을 좋아하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취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었다. 승리제단에 다니면서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여러 번 받게 되었다(뒤에 자세히 나옴).

<하늘>

신선한 공기를
한없이 베풀고
시계절 온갖 바람이
지나는 하늘

모든 생명체의
삶의 원천인 해
방하늘을 밝히고 꾸미는
달과 수많은 별이 있고

온 인류의
꿈과 소망이
한없이
시무쳐 있는 곳

하늘은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이
빛으로 존재했던
태초의 고향

바라볼수록
큰 희망과
한없는 자유함이
끝이 없는 하늘

사람이 하나님으로
원시반본 될 때
멋있는 여행을
영원무궁도록 할 곳



2017년 이슬성신절 2부 행사 시 보광패션의 합창에 장선숙 님이 참여하였다(오른쪽에서 두번째)

음악은 하나님의 언어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느 음악시간이었다. 한 급우가 피아노로 '소녀의 기도'를 연주하였다. 아주 맑고 아름다운 소리에 큰 감동을 받았고, 경이로움이 마음에 와 닿았다. 그 뒤로 늘 신선한 음악에 마음이 끌렸다.

초등학교 오륙 학년 때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고적대 피레이드 대회가 있었다. 난 피리를 연주하며 두 번 참가했다. 모두 같은 고적대단복을 입고 연주하며 행진하는 참 신나는 악단이었다. 그 후로 시간이 나면 피리를 불었고, 여러 악기에 관심을 가졌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공부할 인연은 내게 따르지 않았다. 그런 사연으로 훗날 어려움 속에서도 딸들에게 피아노 레슨을 받게 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음악시간에 악기 연주시험이 있었다. 난

많이 연습한 노들강변을 피리로 연주했고, 한 급우는 피아노로 쇼팽의 즉흥환상곡을 연주했는데 정말 훌륭한 명연주였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어떤 악기라도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으면 된다고 하시며, 나와 피아노를 친 급우에게 '수'를 주었다. 초졸한 악기 연주에도 큰 점수를 주시니 감사와 감격이 컸다. 그 음악 선생님은 즐거운 음악 속에 사시며 작곡도 하시면서 귀한 음악을 가르치려 애쓰신 것으로 생각된다.

음악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언어라고 한다. 바로 삼위일체 완성의 하나님이 계신 승리제단에도 이 귀한 천상의 음악이 함께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무궁화 관현악단 >

각각 다른 음색의 여러 악기의 연주

더없이 훌륭한 하모니

온 정성을 다한 뜻 깊은 찬송이 마음에서 약기로 선율을 타고 흐른다

창조력으로 이루어진 신비스런 악기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 아름다운 소리로

높은 보좌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소리들이 하나되어 높이 솟구친다

또한 마음 온 언저리에 어디든 찾아가서 서슴없이 안겨 큰 감동의 물결로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의 향연 귀한 선율 속에 모두 하나가 된다

중2 때 시작된 나의 신앙

나의 신앙은 중2때 시작되었다. 한 동네에서 사는 3년 선배가 어느 날 찾아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들었고, 방과 후 그 선배님을 따라 교회를 갔다. 초창의 골목길 조촐한 집, 간판은 '기독교 대한개혁교회 주학교회'였다. 아주 밝은 얼굴들의 학생들이 영접을 하고, 크지 않은 방에 단상이 있고, 매일 예배를 보고, 매일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수첩에 시간 시간 기도하고 여러 가지 수행한 것을 OX로 표시했다. 당시 1970년대였는데 겸손하

고, 청결하고, 근검절약하고, 인사 잘하고 등등 훌륭한 덕목을 가르친 좋은 교회였다.

하지만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학업에 지장이 있어서인지, 학교 선생님도 말리시고, 집에서도 말리고 하여 한 일 년 넘게 다니다가 못 다니게 되었다. 그리고는 일상생활로 돌아왔는데 그 신앙의 여운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 깊이 남아 있었다. 나중에 결혼하여 살면서도 가지 못한 신앙의 길이 큰 아쉬움으로 맘에 존재했다.

죄인의 삶은 사망과 지옥밖에 없기에

죄의 삶은 사망이라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망 그리고 지옥밖에 없음을 알고 살자니 마음에 안식과 평화가 없었다. 남편은 생활력이 강하고 가정적이고 성실한 분이였으나, 성격이 강하고 완고하여 신앙은 생각도 못하고 마음에 벗이 되어주지 못했다. 이사를 열 번 할 정도로 어렵고 각박한 생활을 하며 살다가, 금곡동 주공아파트에 입주하며 좀 안정을 찾았다. 난 딸 셋을 낳았는데, 뒤에 늦둥이 막내가 생겨 남편이 많이 말렸지만, 귀한 생명을 저버릴 수 없어서 낳게 되었다.

막내딸이 유치원 입학할 무렵에 이웃집에 계신 온화하게 웃으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다. 몇 번 만났는데 정말 좋은 느낌이었고, 하루는 권하시는 대로 마산제단에 초희성님께서 오시는 날이라 하여 마산으로 갔다. 주님께서는 애식구들을 영접해주시면서 "이 사람을 한 번 만나더라도 여러분들 수명이 10년 늘어났다"고 하셨다. 참 놀라운 말씀이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의 수명을 10년 보강해 주시다니 당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의아해 하니 동행하신 분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장선숙 / 보광패션

우담화에 얽힌 이야기 2편

목불지장보살상에 흰 꽃, 금륜왕 출현

『결정왕경(決定王經)』에서는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아, 모든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나오시며 저 우담바라 꽃도 함께 때 맞추어 나타낸다. 그 꽃은 금과 같이 청정하고 미묘한 빛을 띠고 있으며, 꽃이 피어나게 되면 특이한 향내음이 일 유순(幽旬) 안에 가득하다. 그 꽃의 밝은 빛은 능히 어둠을 부수어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로 하여금 능히 청정함을 얻도록 하며, 병으로 인한 고통을 능히 그치도록 하며, 능히 밝게 비추어 주고, 능히 해로운 냄새를 없애 주고 능히 미묘한 향내음을 베풀며, 지(地)·수(水)·화(火)·풍(風)의 4대(四大)가 넘치고 모자라는 것을 능히 그치도록 한다. 그 꽃은 또한 전륜왕(轉輪王)이 이르는 곳마다 모두 피어나는 것은 아니고, 오직 금륜왕(金輪王)에게만 응(應)하여 나타날 뿐이니, 하물며 계율을 어긴 유정(有情)들이겠느냐? 오로지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실 때만 이 꽃도 함께 나타낸다.'"

서두에서 우담바라 꽃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 《대승보요의론(大乘寶要義論) 제1권》에 나오는 말씀이다. 결정왕경(決定王經)에 우담바라 꽃이 금(金)과 같이 청정하고 미묘한 빛을 띠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창녕 정인원 법당에 안치된 '목불지장보살상'에 유리섬유 같은 하얀 꽃이 피어서 반짝이고 있다. 개원을 앞둔 정인원에 김종규(前 창녕군수) 신도회장이 108개의 목불지장보살을 불사(佛事)하였는데, 창녕 영산에 있는 불교용품점에서 구입

한 것이다.

정인원 정인 원장은 지난해 10월 7일 처음에 불상을 불사 받고 부처님을 모실 자리가 없어 바닥에 모셨는데 불상을 바닥에 모시기에 너무 송구스러워 그 중 10분을 법당 상단에 모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반딧불 같은 뭔가가 오륙십 마리 정도가 불상 주위를 맴돌더니 이후 10분의 목불지장보살 온 몸에 우담바라 가사장삼을 두르시면서 하얗게 목(木)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 정인 원장은 "부처님 108분을 불사받기 전날 밤, 세계 각국의 깃발을 든 부처님 108분이 정인원의 정문을 통해 법당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상서로운 일(목불지장보살 10분에 우담바라가 핀 현상)이 일어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라며 꿈 꾸는 것을 털어놓았다.

세계 각국의 깃발을 든 부처님이 정인원 법당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민국 백성들을 성불하게 하는 역사를 한국에서 이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장래 이 세상에 미륵부처님이 출현하시는데 나라 이름이 계두왕(신라 탈해왕의 아들)이 다스리는 곳이다(將來之世 有佛名彌勒出現於世彌勒國界名 龜頭王所治處-증일 아함경 49권)'라는 말씀과도 부합한다. 정인원 법당이 있는 곳이 옛날 신라 나라에 속한 창녕 조(曹)씨가 출현하였으니 너무나 분명하다.

불상에 핀 의문의꽃,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 법당의 시연은?



정인원 불상에 핀 우담바라(좌, 우) /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중앙)

또 정인원 정인 원장은 108개의 목불지장보살을 불사(佛事) 받기 한 달 전, 경주에서 지진이 처음 나던 날(2016. 9. 12) 꿈속에서 108분의 부처님이 지진 위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목불지장보살상에 감로를 내려 우담화를 피게 한 셈이 릉부처님이 108분의 분신으로 화한 부처님의 발바닥으로 땅속에서 올라오는 지진의 기운을 누르고 약화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초 많은 불자들이 다(將來之世 有佛名彌勒出現於世彌勒國界名 龜頭王所治處-증일 아함경 49권)'라는 말씀과도 부합한다. 정인원 법당이 있는 곳이 옛날 신라 나라에 속한 창녕 조(曹)씨가 출현하였으니 너무나 분명하다.

과학조차 규명하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목(木)꽃, 우담바라

한편 MBN 현장프로 특종세상 243회 <불상에 핀 의문의 꽃,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 법당의 시연은?>에서 정인원 법당을 내려 우담화를 피게 한 셈이 릉부처님이 108분의 분신으로 화한 부처님의 발바닥으로 땅속에서 올라오는 지진의 기운을 누르고 약화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고로 승리제단에서 셈이 릉부처로부터 감로의 광명을 받는 신자들은 목에서 아랫배까지 시원한 생수가 연결되는 체험을 한다] 나무색이 짙은 부분에 꽃이 모여 피어 있는 것도 습기 때문이라면 혹여 이게 종류나 품종이 다를까 생각할 수 있겠다. 목불상에 핀 솜털같은 명주실 같은 흰 꽃을 핀 것으로 한 움큼의 양을 채취하여 국립경상대학교 생명과학연구원 <품종이 분자유전자연구실>에 성분검사를 의뢰하였다. "일단 품종이 같지 않습니다. 모양이 엄청 독특하네요. 품종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격벽이 있는데 이격 격벽이 안 보입니다. 실처럼 죽 연결되어 있네요. 이걸 보지 못한 구조예요. 실험을 해서 직접적으로

DNA 추출을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DNA를 발견 못 했어요.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미생물을 포함한 살아 있는 생명체를 아닌 것 같습니다(노현수 교수 /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

목불상에 핀 흰 꽃이 DNA를 발견할 수 없는 까닭에 생명체가 아니라면, 거짓으로 조작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목(木)꽃이 유리로 만든 섬유와 흡사하다는 것을 알고 유리섬유업체에 의뢰하였다. 유리 섬유에 열을 가할 경우, 섬유가 다시 유리 성질을 가지며 딱딱한 물질로 변하는데 반해, 목불상에서 채취한 흰 꽃은 흔적도 없이 연소되는 것으로 보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보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불상의 흰 꽃은 유기물에 가깝다는 것이다. [목불상의 흰꽃이 DNA를 발견할 수 없어서 생명체라고 할 수 없으나 흔적도 없이 연소되는 것으로 보아 유기체라는 유형무형(有形無形)의 결과가 어떨로 반아심경에 나오는 '색즉시공공즉시색(色卽是空空卽是色)'이라는 말을 연상하게 한다. 그래서 우담바라는 이 세상의 꽃이 아닌 천상의 꽃이라고 했던 가!]

전 인류를 구원하려는 지장보살과 금륜왕의 서원이 같다

정인원에 모셔진 108개의 목불지장보살상은 하나같이 조계종 24교구부사인 선운사 도솔암 내

원공에 봉안된 금동지장보살좌상(보물 280호)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은 머리에 두건(頭巾)을 쓰고 있으며 또 화려한 목걸이로 장식하고 있는데, 이는 고려 후기의 불상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지장보살좌상이다. 그런데 오른쪽은 어둠을 밝히는 여의보주(如意寶珠)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구품인(阿彌陀九品印) 가운데 엄지와 중지를 맞닿아 중품하생인(中品下生印)의 수인을 하고 있으며, 왼손 또한 흔히 볼 수 있는 지장보살의 지광의를 권 모습과 달리 황금수레바퀴(金輪)를 들고 있는데, 이는 여타의 지장보살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불상으로서 장차 아미타여래로 오시는 금륜왕(金輪王)을 염원하고 있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 마칠때 그들이 목이 텅 빌 때까지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衆生度盡 方盡菩提地獄未空 誓不成佛)."라는 지장보살의 서원이 나온다. 이와 같은 서원을 금륜왕으로 오신 셈이 릉부처님도 똑같이 말씀한 바 있는데 다음과 같다. "희생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가까워지고 이 세상 인류와 더불어 영생하는 것이지, 나만 영생하겠다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 혼자만 영생이 된다면 아마 이런 짓(죄를 담당하면서 파를 토하는 해산의 수고)은 안할 거예요. 혼자 영생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인류가 다 죽지 않게 되고 이 세상 만물이 다 영생체로 화해져야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1992년 1월 20일 설교 말씀 중에서*